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이 동 훈

강 수 윤[†]

지 승 회

성균관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출소자, 가족복귀경험, 교정상담자, 합의적 질적 연구(CQR)

[†] 교신저자 : 강수윤,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soulfruit@korea.kr

매년 65,000~70,000명의 성인 수형자가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범 이상의 경력 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법무연감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출소한 30,869명 중 약 24.3%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고, 2010년에는 재범자가 저지른 범죄 913,202건 중 33.2%인 482,792건이 동종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낙인과 더불어 경제활동 및 가족관계 회복과 같은 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소자의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출소자의 재범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고용, 거주지, 의료 및 복지지원, 가족관계, 사회적 낙인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정의 유무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및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출소자의 재범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승만, 신연희, 2005에서 재인용).

특히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가정은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박선영, 2012). 김인숙(1992)에 의하면 출소 후 가족과의 강한 유대감 형성을 통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은 비율이 남성 출소자의 33.3%, 여성출소자의 경우, 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과의 유대는 주거지원, 정서적 안정, 기타 다양한 형태로 출소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ales & Mears, 2008; Mustin, 1989).

Wolff와 Drain(2004)은 수감 기간 중 외부, 특히 가족과의 관계 유지가 수용자의 정서적

충격 완화에 도움을 주고, 출소 후의 현실 적응, 출소자의 자아정체성 및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출소를 2~3개월 앞둔 수감자와 출소한지 2~3개월 된 출소자 413명을 대상으로 가족지지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재정적·정서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ser & La Vigne, 2006). 또한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수형 생활 중 경험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한편 출소 후 재사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laser, 1964; Harm, 1999; Holt & Miller, 1972; Howser & McDonald, 1982).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가족과의 관계 유지가 출소자에게 의식주 제공 및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나아가 출소 후 사회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족과의 단절은 출소 후 돌아갈 보금자리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적응문제를 초래한다(김동연, 2007). 가족과 단절되면 정서적 불안과 수용생활 부적응으로 교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규율 위반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출소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낮은 적응력과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송미애, 2007; 전영실, 신연희, 2009; Loper & Tuerk, 2006; Wright, Dietrich, Ris, Hornung, Wessel, Lanphear, & Rae, 2008). 즉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이웃 또는 가족들로부터의 냉대로 인해 출소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의 반복은 출소자의 사회복귀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출소자들은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과 본인 스스로에 대한 낙인 및 죄책감으로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벽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재성, 2007).

‘범죄’와 ‘전과’라는 낙인은 비단 출소자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가족 또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 범죄인의 가족이라는 비난을 경험하게 된다(신연희, 2002). 수형자들은 수감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움, 불안과 같은 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 또한 가장 또는 주양육자의 상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비롯하여 자녀양육, 남아 있는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은 출소 후에 더 악화되기도 한다(정진연, 2004; 홍봉선, 2002).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은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배우자는 출소자와 자녀 간 관계 개선의 중간 매개자로서 출소자의 가정 복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존재(Visher & Visher, 2013)인 동시에 가족관계 개선에 있어 출소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장기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녀, 배우자, 부모형제 중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김용수, 박현주, 2010). 또한 1990년대 미국 온타리오 지역 남자 재범자들의 출소 후 경험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대인관계 갈등, 특히 이성파트너와의

관계 갈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Zamble & Quinsey, 1997). 수감으로 인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출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Anderson, 1999; Wilson, 1987), 기혼 출소자의 48%가 출소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79.8%가 이혼 또는 결혼생활의 중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섭, 김지선, 1994). 우리나라 기혼 장기수형자의 절반 이상이 이혼상태라는 연구결과(신연희, 전영실, 김영식, 2008)는 수형자의 수감과 출소로 배우자가 감수해야 하는 심적 고통의 무게를 반증해 주고 있다. 출소 후에도 성공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Labouvie, 1996),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 출소 후 배우자와 함께 살 때, 재범 발생 비율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MacKenzie & De Li, 2002)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존재와 지지, 관계 유지는 출소자의 재범 가능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 또한 출소자의 출소 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Travis & Waul, 2003). 출소 후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부모의 재범률을 낮추고(Bahr, Armstrong, Gibbs, Harris, & Fisher, 2005; Baldry, McDonnell, Maplestone, & Peeters, 2003), 자녀와의 강한 유대감은 수용자의 모범적 수용생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 Fischer, 1976; Bales & Mears, 2008; Farrell, 2004). 한편 부모의 수감은 자녀의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Murray & Farrington, 2005, 2006; Murray, Janson, & Farrington, 2007; Roettger & Swisher, 2009). 출소자의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불안, 불면증, 우울, 죄책감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에 휩싸이고(Bloom & Steinhart, 1993), 분노, 공격, 주변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등을 표출하기도 한다(Johnston, 1995; Jose-Kampfner, 1995; National Crime Prevention, 2004). 또한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경제적 박탈감 및 부모와의 유대감 상실로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등의 문제를 경험함으로써(박선영, 신연희, 2012에서 재인용; 전영실, 신연희, 김영식, 2007), 범죄의 세대 전이로 이어지기도 한다(정진연, 2004; 홍봉선, 2002). 부모의 범죄 및 수감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uebner & Gustafson, 2007; Murray & Farrington, 2005; Murray et al., 2007; Roettger & Swisher, 2009). 또한 수용자의 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성인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immons & O'Neill, 2001). 영국에서 40년간 시행된 캠브리지 연구(Farrington & Welsh, 2006), 미국에서 30년간 시행된 피츠버그 청소년 연구(Loeber, Farrington, Stouthamer-Loeber, White, & Wei, 2008) 등의 대표적인 종단 연구에서도 한 개인의 범죄 성향 발달에 부모의 범죄여부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수정, 20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소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을 2배로 증가시키고(Horney, Osgood, & Marshall, 1995), 자녀와의 긴밀한 유대감 형성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Adams & Fischer, 1976; Bales & Mears, 2008; Farrell, 2004), 출소 후 가족 내에서 부모, 배우자, 자

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출소자의 사회 적응과 범죄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Sampson & Laub, 1993)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형자의 절반 이상이 기혼자이며 이 가운데 70% 가량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수형자 및 출소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출소자의 가족 복귀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이처럼 출소자에게 있어 가족 관계 회복은 사회 적응과 재범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출소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범죄 및 재범 요인(박철현, 2000; 이현희, 2004; 장희숙, 2008), 직업훈련 및 취업과 같은 출소자의 재사회화(김영식, 2011; 이운안, 2010), 출소자의 심리적 특성(이민식, 김혜선, 2009), 출소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고성혜, 2005; 이운호, 김대권, 2007; 최인섭, 김지선, 1994), 가족의 지지와 출소자의 사회 적응과의 관계(송미애, 2007; 정진연, 2004), 여성 출소자의 재사회화 및 사회적응 지원 방안(김인숙, 1992; 최영신, 황정임, 2006)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형벌의 효과와 범죄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고, 수형자의 범죄 경력과 범죄 유형 등 범죄 관련 요인을 분석하거나 직업훈련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소 후 가정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출소자 자신 및 그 가족들이 갖는 다양한 경험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에 대한 국내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들의 가족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출소자와 그 가족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출소자 개인 또는 그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출소자 가족은 제2의 피해자로서 출소자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심리적·사회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 복귀 양상을 이해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출소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족 복귀 경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소자의 경우, 낮은 인지처리 능력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솔직한 자기표현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 도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자녀학업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정기관 상담자를 대상으로 출소자가 가정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출소자의 가족관계 경험에 관하여 논의한 연구(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2016; 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2016; 이인곤, 2015)들은 대부분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정전문가를 연구참여자로 실시한 연구(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가 있으나 교정전문가의 경우, 출소자에 대한 조사연구, 교정정책 수립 및 실행, 교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기관 상담자의 역할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출소자의 원활한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하여 출소자 및 출소자 가족에 대하여 실제적인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교정기관 상담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출소자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지지 체계망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은 어떠한가?’이다.

방 법

본 연구는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상담자의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을 사용하였다(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 Hill, Thompson, & Nutt-Williams, 1997). 질적 연구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양적연구와 달리 연구대상이 자신의 내적 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며,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탐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간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주요한 패턴을 심층적이고 구체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을 자연언어로 생생하고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해준다(Eisner, 1991; Miles & Huberman, 1994; Polkinghorne, 1994). 특히 CQR은 연구자들 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경험 내용을 범주화하고 경험의 과정들을 삼각화(triangulation)하는 연구방법으로, 출소자들의 특성, 출소 후 사회적응과 가족관계 회복 양상 및 그 과정에 대한 상담자 개인의 내적 경험, 태도, 신념을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QR 연구방법의 특징

인 반복적인 검증, 합의에 의한 결과도출의 엄격성 및 명시적 해석은 출소자의 사회 적응 및 가족 관계 회복에 필요한 개입 및 지원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와 14개 지역 지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자녀학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 8명이다. 이들의 전문영역은 상담심리, 임상심리를 비롯하여 범죄 심리, 사회복지 및 가족치료 등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출소자 상담을 포함한 총 상담 경력은 평균 7.3년이다. 연구참여자가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강도, 살인, 사기, 폭력, 절도, 향정, 방화, 배임 등의 혐의로 복역한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거지원 및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이다.

연구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

복지사업법”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서울에 위치한 본부를 제외하고 전국에 14개의 지부, 7개의 지소와 1개의 여성지원센터, 1개의 가족희망센터를 갖추고 있다. 공단의 22개 지부 및 출장소에서는 가족이나 친지 등의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숙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숙식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각종 소양교육과 심리치료, 생활지도, 문화체험 등의 자활 프로그램, 사회생활 적응프로그램, 취업알선, 창업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고 있다. 또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출소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들 중 경제여건, 자립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보호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례	성별	소속	전문 영역	상담 경력
1	여	서울	상담심리	7년
2	여	인천	임상심리, 범죄심리	10년
3	남	부산	임상심리	10년
4	남	대구	임상심리	3년
5	여	경남	상담심리	3년
6	여	서울	상담심리	12년
7	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 가족치료	9년
8	여	경기	범죄심리	5년

지원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6).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팀

본 연구에서는 영역 코딩과 핵심개념 코딩 및 교차분석의 모든 과정에 상담심리 전공 교수 2명, 상담교육 박사과정생 1명으로 구성된 총 3명의 합의팀이 참여하였고, CQR로 다수의 질적연구 출판경험 및 질적연구 관련 방법론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회복지분야 박사 1인과 상담교육 전공 박사과정 학생 1명으로부터 영역의 핵심 개념들이 적절하게 범주화되었는지에 대해 감수를 받았다. 합의팀은 본 연구의 주제와 방법으로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감수자를 추천받았다. 합의팀은 감수자에게 연구목적,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을 구두로 제시한 후 감수의뢰를 하였으며, 감수자가 의뢰 요청

을 받아들임으로써 감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면접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개발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반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는 면접 시 유도심문, 심층적 질문, 어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상담자의 진행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접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김영천, 2006). 면접은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2인이 주질문자로서 진행하였고, 상담심리학 박사 수료생 1인이 보조 질문자로 참여하였다. 면담 시작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자료의 활용과 범위, 녹음, 비밀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분석과정 중 부정확한 정보가 있거나 보

표 2. 면접용 질문지

주제	질문내용
심리사회적 특성	출소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자녀의 의미	출소자의 사회 적응 과정에서 가족과 자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가족복귀 장벽 및 성공요인	출소자들이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복귀에 성공(실패)한 출소자의 특징	출소 후 가족 복귀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출소자 유형별 가족복귀 과정의 특성	출소자들의 유형(성별/수형기간/재범여부/범죄유형)별 특성이 가족복귀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범죄 유형별 상담 개입 및 지원 방안	출소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 및 상담적 개입에 있어 범죄의 유형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소자 가족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한 내용 요소	출소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 및 상담적 개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충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면접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면접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9개월에 걸쳐 개인별 1회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최소 100분에서 최대 120분이 소요되었다. 면접에 사용된 질문지는 표 2와 같다.

영역부호화

영역 부호화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에 관한 정보 자료군인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이승은, 정남운, 2003). 합의팀은 우선 각자 8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합의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Ⅰ. 출소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Ⅱ. 출소자 가정의 부부 및 자녀관계 경험', 'Ⅲ. 가족 복귀의 성공과 실패 요인'의 3개 영역 외에 'Ⅳ. 가족 복귀 프로그램 개발 시 유의점'과 'Ⅴ. 개설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 과정을 통해 IV, V 영역을 '출소자 가족 복원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 방향과 지원 내용'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하자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8개의 전체 사례에 해당하는 4개 영역을 최종 결정하였다.

핵심개념 구성

핵심개념 구성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핵심이 되는 몇 개의 단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독립적으로 핵심개념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Hill et al., 2005).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연구자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영역별로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연구자 전원이 모여 핵심개념의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하여 합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컨대, 'Ⅲ. 가족 복귀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서 범죄유형을 언급하는 것은 출소자의 의지적인 부분을 주제로 한 동일 영역의 다른 개념들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구대상자인 상담자들은 범죄유형이 출소자의 성향 및 출소자가 처한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출소자의 가족 복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재토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통해 범죄유형을 가족 복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영역과 핵심개념 감수

총 8사례에 대한 영역과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영역 및 각 사례별 핵심개념 구성에 관한 합의 자료와 축어록을 검토함으로써 원자료가 적절한 영역으로 들어갔는지, 영역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 없이 발췌되어 요약되었는지, 핵심개념이 명확하며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감수자는 출소자의 자립의지 및 경제력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분석한 연구자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였으나 출소자의 자립의지와 경제력은 본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자료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연구팀은 원자료 확인 후, '자립의지와 경제력'을 출소자의 '책임감'으로 수정함으로써 감수결과를 반영한 범주명을 다시 채택하였다.

교차분석

교차분석은 모든 사례에 대한 영역 및 핵심 개념이 구성되고 난 후 사례 간 유사성 또는 패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각 영역에 대한 핵심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에 연구자들은 사례별로 각 영역에서 나타난 핵심개념들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각 사례들의 핵심개념을 가장 적절한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원자료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주로 분류한 후, 핵심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범주명을 결정하였다. 예컨대 출소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수치심, 외로움, 우울, 낮은 자존감, 수치심, 죄책감, 타인의 평가에 대한 방어적 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 내용을 출소자의 '심리적 어려움'이라는 범주명으로 압축하여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주명으로 제시하자는 합의 하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선별하여 '수치심과 죄책감, 우울, 불안, 외로움을 느낌'이라는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차분석 감수

교차분석 자료에 대해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각 영역의 핵심개념들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핵심개념들이 특정 범주에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범주명이 모든 핵심개념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는지, 범주들을 더 나누거나 통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감수 결과, 출소자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심리적 억압, 강박적 훈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출

소자 자녀의 부정적 경험'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은 출소자 자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합의팀은 감수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범주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결 과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경험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영역과 2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Hill 등(1997)의 제안에 따라 표본의 전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범주마다 8개의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적(general)', 4~7사례에 나타나는 경우는 '전형적(typical)', 2~3사례에 나타나는 경우는 '변동적(variant)'으로 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각 영역에 대한 범주와 이를 대표하는 핵심개념 또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출소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참여자들은 인지적·사회적 기술 부족을 출소자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았다. 출소자들은 낮은 학력과 사회적 경험의 결여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들의 낮은 충동·분노 조절 능력과 피해의식,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성향이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뱃피를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배운

표 3.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영역과 범주	응답빈도
I. 출소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 인지적·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인한 사회생활 부적응	일반적 (n = 8)
낮은 자기관리 능력은 재범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참여자 4, 5, 7
낮은 수준의 분노 및 충동 조절 능력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함	참여자 2, 8
폭력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임	참여자 1
강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외적 귀인 성향	참여자 6
낮은 학력수준 및 사회경험의 결여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음	참여자 3
* 수치심과 죄책감, 우울, 불안, 외로움을 느낌	전형적 (n = 7)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을 느낌	참여자 4, 5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우울을 경험함	참여자 1, 8
장기수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매우 예민함	참여자 2, 3, 7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	전형적 (n = 7)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갈등 및 자녀에 대한 관심 결핍의 원인이 됨	참여자 3, 7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됨	참여자 1, 6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가장 절박한 문제	참여자 2, 5, 8
* 어린 시절 원가족의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함	전형적 (n = 6)
가정폭력 등으로 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 기회가 박탈됨	참여자 5, 6, 8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와 같이 방치된 유년시절을 보냄	참여자 2, 3, 4
* 가족관계회복 과정에서 지원유형별(숙식지원/주거지원) 차이 존재	전형적 (n = 6)
주거지원 대상자는 안정적인 가족기능이 작용하는 반면 숙식지원 대상자는 가정불화 및 가정 해체의 비율이 높음	참여자 2, 4, 6, 8
주거지원 대상자가 직장에서 높은 근속율을 보이는 반면 숙식지원 대상자는 가족과의 갈등 및 잦은 누범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됨	참여자 1, 5
II. 출소자 가정의 부부 및 자녀관계 경험	
*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	변동적 (n = 3)
수감 중인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남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보다 견고해짐	참여자 4, 7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면서 남편이 겪었을 어려움에 공감하게 됨	참여자 6
*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김	전형적 (n = 7)
자녀가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해 함	참여자 2, 4, 6
부모의 출소사실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암묵적 가족규칙은 자녀에게 큰 심리적 억압으로 작용함	참여자 1, 7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수감사실이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숙식지원대상자에 비해 주거지원 대상자인 경우, 수감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는 가정의 많음	참여자 3, 5

표 3.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계속 1)

영역과 범주	응답빈도
II. 출소자 가정의 부부 및 자녀관계 경험	
* 범죄대물림에 대한 우려로 자녀에 대한 출소자 부모의 강박적 훈육이 이루어짐	전형적 (n = 4)
출소자 부모의 부정적인 삶의 양상들이 세습되는 현상이 나타남	참여자 3, 4
출소자 부모와 비슷한 성격적 패턴이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질책이 이루어짐	참여자 2, 7
*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변동적 (n = 3)
부모의 출소사실을 알게 된 자녀의 성적저하 현상이 나타남	참여자 6, 8
출소자 자녀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함	참여자 4
* 배우자의 이중고와 양가감정	변동적 (n = 3)
(출소한)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동정심과 원망, 분노의 양가감정이 공존함	참여자 2, 7
자녀양육과 경제적 부양이라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함	참여자 6
* 부부·가족 간의 대화 단절	변동적 (n = 3)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족 간 의사소통의 벽으로 작용	참여자 1, 7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출소자들은 의지할 곳을 잃게 됨	참여자 8
III. 가족 복귀의 성공과 실패 요인	
* 가족에 대한 책임감 대 의존성	전형적 (n = 4)
자립의지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출소자의 노력은 가족복귀에 큰 강점으로 작용함	참여자 1, 7
출소자에게 직업이 없거나 가족에게 의존하려는 경우, 가족의 거부와 회피를 초래함	참여자 6, 8
*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 대 가족의 거부와 회피	전형적 (n = 4)
원활한 부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정은 가족 내 구성원의 출소 사실에 대해 가족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짐	참여자 2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출소자에 대한 배우자의 부정적 시각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출소자와 자녀 간 거리가 더 벌어지게 됨	참여자 6, 7, 8
*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대 존재감 상실	변동적 (n = 3)
경제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의 가정 내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가장으로서 출소자의 영향력이 작아지면서 바깥으로 도는 상황이 발생함	참여자 8
출소자 본인 스스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가족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참여자 7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자포자기의 심리를 초래함	참여자 1
* 범죄유형에 따른 차이 존재	전형적 (n = 4)
수감 전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했던 사람의 경우, 출소 후 가족복귀가 비교적 수월함(예 : 경제사범)	참여자 6, 7
향정, 성폭력, 살인 및 재범이 반복되는 경우 가족 복귀는 거의 불가능함	참여자 2
알코올 중독의 경우, 가족 복귀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큼.	참여자 8

표 3.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계속 2)

영역과 범주	응답빈도
IV. 출소자 가족 복원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 방향과 지원 내용	
* 삶의 기술 습득	전형적 (n = 6)
대인관계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이 필요함	참여자 4, 7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평범한 일상들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참여자 3, 5, 8
분노나 충동조절 등 심리적 문제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요함	참여자 2
* 청소년 자녀에 대한 학업 지원	전형적 (n = 5)
청소년 자녀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띤 학업 지원이 효과적임	참여자 2
자녀 학업 지원을 통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어주고, 신분 전환의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참여자 3
부모의 출소 사실을 알고 그 충격으로 자녀가 자살을 선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자녀에 대한 지원 시 철저한 비밀보장이 요구됨	참여자 1, 5, 6
* 활동 중심의 휴식 개념 프로그램 개발	전형적 (n = 7)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과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임	참여자 3, 5, 6, 7
삶에 지쳐있는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의 개념으로 레크레이션 및 활동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참여자 1, 2
교훈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가족 내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참여자 4
* 수감 기간 중 심리적 공백을 채우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 개발	전형적 (n = 6)
부부간 서로의 깊은 내적 감정들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참여자 1, 2, 4, 7, 8
배우자(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라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고통받는 배우자에 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함	참여자 6
* 철저한 스크리닝이 선행된 개입의 필요성	전형적 (n = 5)
개인의 범죄력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주거지원 또는 숙식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참여자 2, 5, 6
범죄 횟수, 범죄 경력, 범죄 방법, 범죄 동기, 범죄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선별 작업을 통해 상담자의 개입과 관리 수준이 결정되어야 함	참여자 3, 8
* 심리 지원을 위해 집단적 접근보다는 개인적 접근이 효과적임	전형적 (n = 4)
개인의 범죄력 노출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집단 내에서의 알력 및 기싸움이 존재하므로 집단보다는 개인적 접근이 효과적임	참여자 2, 5, 8
출소자의 배우자는 본인의 상황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참여자 6

게 없고 사회적 경험이 적다 보니까...비행
기 못 타보신 분들이 태반일 정도로... 학
교도 초등학교 중퇴, 초졸 이런 분들이 대

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계세요. 그리
고 고졸이 실질적으로 드물거든요.(참여
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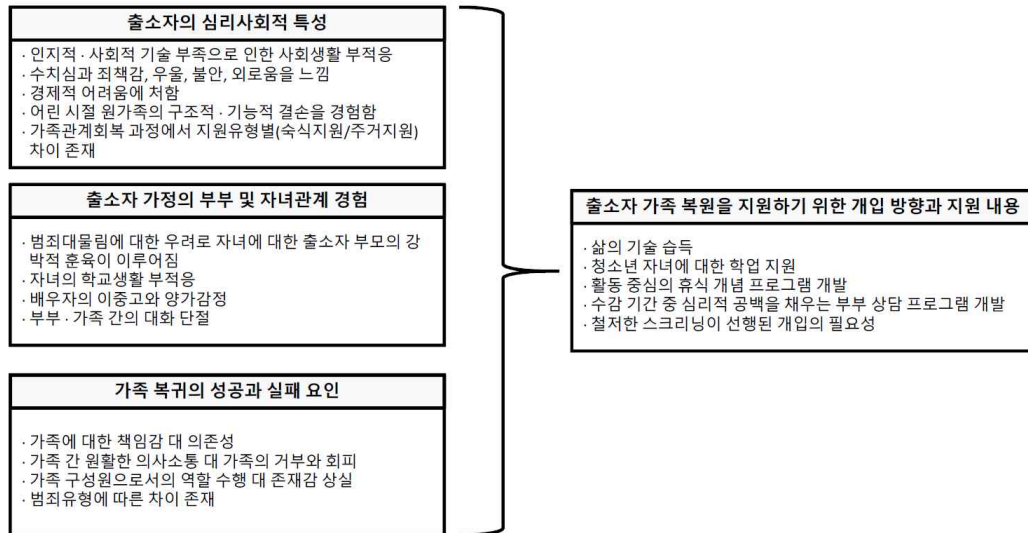


그림 1.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롯하여 우울, 현실에 대한 불안, 외로움 등을 느끼고 있으며, 장기수일수록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철저하게 혼자라는 고립감은 출소자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갖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한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대부분 불안, 우울 같은 게 심하고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이 낮은 상태잖아요. 가족도 없고 내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나를 책임져줄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가 혼자라는 그런 생각...고립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불안정한 직업으로 절박한 생계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보고

하였다. 출소 후 경제적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출소자 중에는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으며, 출소자가 처한 경제적 곤란은 자녀에 대한 관심의 결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자녀한테도 삶이 팍팍하다 보니깐 관심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돈 관리 자체를 할 분도 없고 신용불량이라서 신용회복 위원회나 그쪽으로. 저희는 이제 본인이 돈을 버시면 일용직으로 나가서...(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수의 출소자들이 어린 시절에 고아와 같이 방치된 성장 과정을 경험하였고, 부모의 이혼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 경험을 갖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4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말하는 출소자를 보며 안타

까워하였고, 참여자2는 인생의 '모래성'을 쌓은 듯 희망 없이 살아가는 출소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이전의 자기네들의 청소년기나 어렸을 때에 있었던 어떤 가족관계에 있어, 가족문화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학습이 되고 실패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결혼 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혹은 자식에게서도 답습이 되죠.(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서 숙식지원 대상자와 주거지원 대상자 간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공단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주거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반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관에 거주하며 숙식을 제공받는 숙식지원대상자는 가정불화 내지 가정 해체의 비율이 높고 잦은 누범으로 가족 복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 주거지원대상자가 높은 근속률을 보이는 반면, 숙식지원대상자는 가족의 부재로 인한 책임 의식의 결여로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아무래도 주거지원 하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에 가시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솔직히, 근데 숙식 제공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홀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버리면 조금 책임 의식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시거든요.(참여자 5)

숙식을 하시는 분들은 처나 동거녀가 없는 경우가 좀 많구요, 있다 하더라도 아

까 말씀하셨듯이 잦은 누범이나 또 잦은 범죄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4)

참여자1은 숙식지원대상자의 경우 알코올, 가정 폭력, 절도와 같은 사건들과 연루되어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반복되는 수감 생활로 가족들의 회피·외면·연락 두절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였다.

출소자 가정의 부모 및 자녀관계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한 출소자 가정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감 중인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그 동안 가족 부양의 책임감으로 힘들었을 배우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수감이 부부 간 서로에 대한 노력과 유대 관계 형성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출소 후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보다 견고해지는 긍정적 역동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패닉 상태...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제 집안일만 하다가 남편이 하던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고 공감을, 그건 더 좋았대요.(참여자 6)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 사실을 숨기는 출소자 가정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부모가 매우 불안해하며, 이로 인해 가족 내 불안정한 역동이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출

소 사실에 대한 가정 내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부모의 전과 사실을 모르는 자녀들이 많았고 특히 초등학생, 주거지원 대상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수감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국적인 상황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갖고 있었으며, 부모의 출소 사실을 모르는 자녀와의 제한적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보고하였다. 한편 부모의 출소 사실을 알지만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의된 침묵’은 자녀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른 게 뭐냐면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비밀을 다 갖고 있으니깐 서로 그 얘기를 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거, 출소자니깐...죄를 지어서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까봐 불안하고, 그것이 만약에 알려지면 큰일날거다...이런 상당히 파국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고요.(참여자 2)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 부모가 범죄 대물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녀를 강박적으로 훈육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출소자 부모는 자신과 비슷한 성격적 패턴이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경우, 이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자녀를 강박적으로 훈육하였으며, 출소한 배우자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불만을 자녀들에게 투사하기도 하였다.

어떤 어머니는 내 아이가 똑같이 출소자가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강박을 막 가져서 애가 스스로 공부를 너무 잘 하는데, 막 강박적으로 애를 교육을 시키고 훈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수감 및 출소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상처에 대해 언급하였다. 참여자3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가 출소자라는 현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고 싶은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출소자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가 하면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출소자 자녀에게는 성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고등학교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가 되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걸 자기 마음속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많아요.(참여자 3)

또한 출소자의 배우자가 경험하는 복잡한 심경을 이중고와 양가감정으로 설명하였다. 출소자의 배우자들은 배우자(출소자)에 대하여 미안함과 원망, 동정심과 분노의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한 불안과 함께 자녀 양육과 경제적 부양이라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하였다.

혼자 다 감당하고 아이를 다 감당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

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양가감정에 시달리는 거죠. 어쨌든 불쌍한 남편이고. (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남은 가족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안겨준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외면과 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출소자 가족 간 의사소통의 벽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였다.

사회적인 낙인이나 이런 것들... 가족들한테 다 안겨준 사람이니까 자식들한테도 배우자한테도 그 문제가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에 대한 스트레스,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출소를 하고 나서도 서로가 어설픈 벽으로 막아두는 어설픈 채로 이야기를 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참여자 1)

참여자8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 해체 및 가족 관계 단절로 인해 ‘코너에 물리는’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가족 복귀의 성공과 실패 요인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가 가족에 복귀하는데 있어 가족에 대한 출소자의 책임감과 의존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였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출소자로 하여금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였고,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삶의 목표는 취업과 저축 등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복귀에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반면, 출소 후 가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가족의 강한 거부와 회피를 초래

하는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8은 가정이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소자 본인의 직업이 없는 경우 가족 관계 복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뽕 뜯으러 갈라고 가족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하지 가족들이 어려울 거란 생각 못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도와주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연락을 해보면 가족들은 질릴대로 질러가지고 아프다고 해도 안받아주는.(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출소자의 가정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원만한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출소 사실에 대해 가정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부부 간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됨으로써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출소자에 대한 배우자의 부정적 시각이 자녀들에게 반영되어 출소자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출소자의 가정 복귀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가 가족에 복귀하는데 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능 수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뭘 해도 안된다는 자포자기의 심리, 출소자 본인 스스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가족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의 가정 내 영향력이 커지면 반면 출소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서 출소자가 바깥으로 도는 현상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출소자가 가족 복귀에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자기 역할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되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되게 돌아가기 힘든 것 같아요.(참여자 7)

징역을 살다 오면 어느 순간, 경제권을 어머니가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버지는 힘이 작아지고, 아버지는 결국에 다시 바깥으로 돌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라 출소자의 가정 복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범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 문제로 수감된 경우 가족 및 수감자 스스로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가족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성폭력, 살인, 강간의 경우에 가족 복귀는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향정, 알코올 중독, 반사회적 범죄의 경우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가족 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범들은 형량 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갔다 오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문제없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경제력 때문에 그런 거니깐. 근데 정말 그 중범죄 특히 마약, 향정 이런 분들은 거의 부모하고도 단절된 분도 많죠. 성폭력이나 이런 분들은 재범, 3범한 사람들은 사실 가족 복귀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살인도 마찬가지로 가장 뭐...아무래도 향정이나 알코올이나 중독 가까운, 이런 분들은 프로그램 참가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이분들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복귀가 사실...(참여자 2)

특히 금융 및 경제 범죄의 경우, 출소자 가족들은 출소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출소자를 안쓰럽게 느끼는 경향도 나타났다.

출소자 가족 복원을 지지하기 위한 개입 방법과 지원 내용

연구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철저한 스크리닝이 선행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숙식지원대상자의 경우 폭력·절도·성폭력 등 범죄 유형을 비롯하여 범죄 횟수·범죄 경력·범죄 방법·범죄 동기·범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 개입방법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가족 내 대화의 수준, 가족 응집력 수준에 따라 집단 구성 및 개입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전에 가족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알코올중독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 이전에 부부관계를 위협할 정도로의 개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가 없죠. 교도소의 어떤 투입이든, 여기에서의 투입이든 가정복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크리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집단적 접근보다는 개인적 접근이 효과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소자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신분 노출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참여자6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개방하는데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집단 안에서 집단원 간 형성된 알력과 기싸움 등과 같은 현상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분들이 자기의 범죄력을 내보인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싫어하고 강하게 반응을 해요. 특히 중범죄일수록 굉장히 꺼리죠. 여기서 저번년도에 집단 상담 한번 했었는데 과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힘들었는데”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 대신 남자들은 그 안에 알력이 다 보이잖아요. 그 속에서도 기 싸움을 해요.(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가 성공적인 사회 적응 및 가족 복귀에 필요한 지원 내용으로 다양한 삶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이 이성문제를 비롯하여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입 및 훈련, 돈 관리, 뷔페 먹는 법이나 여행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삶에 대한 의욕과 동기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출소자들은 전반적으로 분노 조절과 충동 조절 능

력이 낮기 때문에 주변의 부정적인 자극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분들이 너무 당연시해야 될 경험을 못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 합동 결혼식을 하면 뷔페를 줘니다. 저기 부산에 더파티라고 거기서 같이 하는데 뷔페를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한 접시만 먹을 수 있나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뷔페집 가서 뷔페먹는거 시켜줬고 그런 식으로 현실에 맞춰서 바뀌어나가고 있거든요. 상담에도 직업적인 상담이나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동료 간의 갈등이나 그런데서부터 접근을 해서...(참여자 3)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수감 기간 중의 공백을 채우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감 기간 중 배우자가 경험한 정신적 고통과 출소자 자신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 서로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부끼리 정말 한 맺힌 것처럼 출소자한테 배우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소 중일 때도 그렇고 출소 후에도 그렇고, 출소 후에는 그런 의식, 시선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간다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자가 가지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수감 기간 중에 그 가장이 교도소 안에서 받았던 고통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

요.(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 및 그들의 청소년 자녀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띤 학업 지원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범주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부모의 출소 사실을 알고 그 충격으로 자녀가 자살을 선택한 사례로써,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비밀 보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 처리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자녀 학업 지원을 왜 선택을 했었냐면 심리 치료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애들은 일단 노출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녀 학업으로 갔어요. 그렇게 서서히 끌고 들어오자. 청소년들은 그냥 일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참여자 2)

저희가 학업 지원하는 이유도 지원을 통해서 자녀를 살려서 대물림을 끊어주겠다. 그런 지침도 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신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는 공부이거든요. 대학을 가는 거예요.(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이 출소자 가족에게 있어 ‘쉽’이 갖는 의미에 대해 거론하였다.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의 삶에 지쳐 있는 출소자 가족들을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레크레이션 등과 같이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참

여자5는 법무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자 기대했으나 뻘뻘한 프로그램 일정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호소하는 출소자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출소자들이 활동과 휴식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진짜 좀 휴식의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요. 주말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 섭외하기도 힘들어요. 식당일. 그니까 항상 스트레스에 좀 찌들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그니까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거를 많이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참여자 2)

논 의

본 연구는 교정기관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복지 경험을 탐색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수행되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역과 범주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실제로 정상적인 가정과 달리 부모가 서로 심하게 갈등관계에 있거나 이혼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감소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우울이나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돈규, 임영식, 1998). 이는 성인범죄자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애정 부족과 가정불화로 가출을 경험했으며(강은영, 2005), 청소년 재소자의 70% 정도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하였다(고성혜, 2005)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둘째, 상담자들은 출소자들이 수감 사실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현실에 대해 불안해하며,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낮은 문제해결력과 자기관리능력, 사회적 기술 부족, 자기중심적 사고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출소자들이 우울을 호소하고 있으며(이철호, 이민규, 2006; 정유희, 안창일, 2004), 이러한 심리적 충격이 클 경우, 사회복귀를 스스로 포기하고 재범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연구결과(이상현, 200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소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출소자에게 분노나 충동 조절 등 심리적 문제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경험 제공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 및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담자들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상태이고, 출소 전 가족 복귀와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가 출소 후 가족복귀와 취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이상의 큰 괴리감을 경험하며 힘들어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출소 후 적응기간의 정서적·재정적 자

원은 일차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출소자가 현실과 이상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역할도 가족이 담당한다는 연구 결과(Mustin, 1989)와 재범자 중 3분의 1 이상이 체포되기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Johnson, 1995)는 출소자의 가족 복귀와 취업 지원이 사회적응과 재범률을 낮추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넷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출소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하고 혹시라도 자녀가 알게 될까 하는 불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수감사실에 대하여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이로 인한 낙인이 두려워 비밀을 감추는데 전전긍긍하는 출소자 아내들에 대한 연구결과(이동훈, 전지열, 김주연, 2016)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범죄의 대물림에 대한 염려로 출소자 부모와 비슷한 성격이 자녀에게서 드러나는 경우 강박적으로 질책하고 훈육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가 범죄자인 경우에 자녀 역시 범죄자가 됨으로써 범죄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주성진, 2010)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소자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및 훈육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는데, 드물게 배우자의 수감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

서 배우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었다든지 출소 후에 부부 간·가족구성원 간 관계가 견고해졌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역경을 통한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서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고 그 비밀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들의 보고는 출소자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섯째, 상담자들은 의사소통 패턴 관리 및 취미나 문화생활을 공유하고자 하는 부부의 노력은 출소자가 가정에 복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반면 출소 후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가족 부양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출소자 스스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위축되어 가족 복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상담자들은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들이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개입 전 철저한 스크리닝이었다. 숙식지원 또는 주거지원과 같은 사회적응 지원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일괄 개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담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특히 상담자들은 숙식 지원 대상자의 경우 ‘7가지 색의 크레파스’와 같은 다양한 성향과 천차만별인 개인적 요구를 일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고민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하였다. 범죄유형, 수형기간에 따라 상담자의 개입과 관리 수준이 결정되고, 개인의 범죄력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지원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입 전 스크리닝에 필요한 범죄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때 출소자 개인의 범죄력은 객관적으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원활한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에서 상담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범죄자 관리·감독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4년에 교정업무를 관할하는 “Her Majesty’s Prison Service”와 지역사회 교정을 관할하는 “The National Probation Service”를 통합하여 “국가범죄자 관리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를 신설한 영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이동훈 외, 2014). 우리나라에서도 출소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회 내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통합적·총체적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곱째, 상담자들은 출소자 가족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부 상담 프로그램과 활동 중심의 휴식 개념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상담자들은 출소자 가족에게 ‘쉽’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여 가족끼리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 상호작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출소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족 캠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감 기간 중 심리적 공백을 채우는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 기간 동안 단절되었던 시간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 갖고 있

던 응어리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시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는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족복귀의 중요한 요인이라 보는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수감으로 인해 단절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출소자가 출소 후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만나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성혜, 2005).

여덟째, 상담자들은 출소자 자녀에 대한 학업 지원을 학력 상승의 의미 외에도 부모에게서 답습될 수 있는 범죄의 대물림을 끊어주고 신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담자들은 출소자 자녀를 위한 학업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신분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와 대학 진학이라는 통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학력에 대하여 묻는 조사에서 초졸 이하가 12.6%, 중졸 이하가 21.9%, 고졸 이하가 20.6%로 학력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동훈 외, 2014)는 출소자 자녀들에 대한 학업 지원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교정기관 상담자가 인식한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 복귀 경험에 대해 탐색한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 가정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혼을 통한 가족의 구조적 안정은 범죄자가 사회에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구성원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는 개인의 범죄동기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이현희, 200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은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있어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재소자의 54.1%, 출소자의 42.2%가 가족관계 회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성혜, 2005). 출소자에게 가정의 부재는 출소 후 사회적응에 있어 상당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소자 가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출소자의 가정 복귀 양상을 심도 있게 탐색함으로써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감 기간 중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수감 생활은 물론 출소 후 사회 적응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로 수감 기간 중 가족과의 활발한 접촉은 수용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고(김두섭, 전영실, 1996), 장기적으로 출소 후 재범 가능성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m, 1999; Mills & Codd, 2008; Mustin, 1989). 이는 출소자 3만 여명의 재범률 횡수와 교정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체험 및 견학, 가족 만남의 날, 접견과 같은 외부접견 활동이 재범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오, 2012)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자녀와의 접견 및 서신 교환

이 없는 수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수용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신연희, 2002)는 출소자의 원활한 가정 복귀 및 재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용 생활 중 가족 관계 양상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수가 8명이라는 점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양상에 대한 탐색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감 기간 동안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역동 및 수감자와 가족의 경험적 특징을 탐색함으로써 수감과 출소라는 맥락적 특성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소자와 그 가족을 심리적·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는 상담자를 통해 출소자 가정이 갖는 경험을 탐색하였으나 이는 출소자 가정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로써 출소자 및 그 가족의 직접적인 경험과 입장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출소자 및 그 가족의 생생한 경험이 반영된 연구와 이를 기초로 한 상담 개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05). 경력범죄자의 성인초기 범죄지속과 중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혜 (200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동언 (2007). 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보호감호 경험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 전영실 (1996). 여성 수형자의 수형 생활 실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승만, 신연희 (2005).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식 (2011). 수형자 사회복귀 전환관리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1), 7-41.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용수, 박현주 (2010). 장기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6(1), 123-143.
- 김인숙 (1992).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6), 9-31.
- 남재성 (2007). 출소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본 수형자 처우의 현실. 사회과학연구, 13(2), 61-88.
- 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2016). 출소자 가정복귀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질적연구-주거지원 가정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3(2), 469-490.
- 박선영 (2012). 수형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12-01-36.
- 박선영, 신연희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3), 1-270.
- 박수정 (2013). 성폭력 수용자의 치료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철현 (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00(1), 11-203.
- 송미애 (2007). 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기대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 (2002). 기혼 여자재소자에 관한 연구: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연희, 전영실, 김영식 (2008). 수용자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0, 203-225.
- 양돈규, 임영식 (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4(1), 55-74.
-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 20(3), 499-530.
- 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2016).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81-108.
- 이동훈 외 (2014).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모델 정립과 모델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
- 이동훈, 전지열, 김주연 (2016). 아직도 가야 할 길: 출소자의 아내가 경험하는 삶의 도정(道程).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2), 223-261.
- 이민식, 김혜선 (2009). LSI-R을 이용한 성별·범죄유형별 재범유발요인. 형사정책연구, 157-187.
- 이상현 (2004).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승은, 정남운 (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3), 441-460.
- 이운안 (2010). 출소전후 취업 및 창업지원 연계필요성.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59-62.
- 이윤희, 김대권 (2007). 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경험연구. 사회과학연구, 13(2), 27-60.
- 이인곤 (2015).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3), 153-180.
- 이철호, 이민규 (2006).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 77-90.
- 이현희 (2004).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형벌과 사회적 결속. 교정연구, (24), 97-121.
- 장희숙 (2008). 재범요인과 범죄유형별 특성: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 교도소 수형자 대상. 교정연구, (39), 163-190.
- 전영실, 신연희, 김영식 (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2007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법무부 여성정책과.
- 전영실, 신연희 (2009).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45), 279-303.
- 정유희, 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의 NEO-PI-R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25-740.
- 정진연 (2004).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교정연구, (23), 185-219.
- 조윤오 (2012).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재복역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35), 187-216.
- 주성진 (2010). 부모의 범죄성향이 자녀의 비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신, 황정임 (200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
응지원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총서, 2006(24), 15-214.
- 최인섭, 김지선 (1994).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총서, 11-18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http://koreha.or.kr/support/
support-work?item=5](http://koreha.or.kr/support/support-work?item=5)에서 2016. 01. 25. 자
료 얻음.
- 홍봉선 (2002). 출소자 복지증진과 갇생보호 사
업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14, 143-175.
- Adams, D., & Fischer, J. (1976). The effects of
prison residents' community contacts on
recidivism rates. *Corrective & Social Psychiatry &
Journal of Behavior Technology, Methods &
Therapy*.
- Anderson, E. (1999). *Code of the Street*(pp. 107-141).
New York: Norton.
- Bahr, S. J., Armstrong, A. H., Gibbs, B. G.,
Harris, P. E., & Fisher, J. K. (2005). The
reentry process: How parolees adjust to release
from prison.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3(3), 243-265.
- Baldry, E., McDonnell, D., Maplestone, P., &
Peeters, M. (2003). Ex-prisoners, housing and
social integration. *Parity*, 16(5), 13.
- Bales, W. D., & Mears, D. P. (2008). Inmate
social ties and the transition to society: Does
visitation reduce recidivism?.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 Bloom, B., & Steinhart, D. (1993). Why Punish
the Children?: A Reappraisal of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Mothers in America.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Eisner, E. (1991).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ew York: Macmillan*.
- Farrell, D. (2004). Correctional facilities: Prisoners'
visitation rights, the effect of *Overton v.
Bazetta* and *Lawrence v. Texas*. *The Georgetown
Journal of Gender and the Law* 5, 167-174.
- Farrington, D. P., & Welsh, B. C. (2006). Saving
children from a life of crime: Early risk
factors and effective interven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Glaser, P. E. (1964). Pressure effects on postulated
lunar materials. *Icarus*, 4(4), 335-352.
- Harm, N. J. (1999). Families and Re-Entry
Process. Family & Corrections Network
Report, (21).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 196-205.
- Hill, C. E., Thomson, B. J., & Nutt-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olt, N., & Miller, D. (1972). Explorations in
inmate-family relationships. Sacramento, CA:
Research Division,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 Horney, J. D., Osgood, W., & Marshall, I. H.
(1995). Criminal careers in the short term:
Intra-individual variability in crime and its
relation to local life circumsta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5), 655-673.

- Howser, J. F., & MacDonald, D. (1982). Maintaining family ties. *Corrections Today*, 44(4), 96-98.
- Huebner, B. M., & Gustafson, R. (2007). The effect of maternal incarceration on adult offspring involv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3), 283-296.
- Johnston, J. R. (1995). Research Update. *Family Court Review*, 33(4), 415-425.
- Kampfner, C. J. (1995).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in children of imprisoned mother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89-100.
- Labouvie, E. (1996). Maturing out of substance use: Selection and self-correction. *Journal of Drug Issues*, 26, 457-477.
- Loeber, R., Farrington, D. P., Stouthamer-Loeber, M., & White, H. R. (Eds.). (2008). *Violence and serious theft: Development and predic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Taylor & Francis.
- Loper, A. B., & Tuerk, E. H. (2006). Parenting Programs for Incarcerated Parents: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7(4), 407-427.
- MacKenzie, D. L., & De Li, S. (2002). The impact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ontrols on the criminal activities of probation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3), 243-276.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Sage.
- Mills, A., & Codd, H. (2008). Prisoners' families and offender management: Mobilizing social capital. *Probation Journal*, 55(1), 9-24.
- Murray, J., & Farrington, D. P. (2005). Parental imprisonment: Effects on boys' antisocial behaviour and delinquency through the life-cours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1269-1278.
- Murray, J., & Farrington, D. P. (2006). Evidence Based Programs for Children of Prisoners. *Criminology & Public Policy*, 5(4), 721-735.
- Murray, J., Janson, C. G., & Farrington, D. P. (2007). Crime in adult offspring of prisoners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two longitudinal sampl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1), 133-149.
- Mustin, J. W. (1989). The family: A critical factor for corrections. Family Research Council of America.
- Naser, R. L., & La Vigne, N. G. (2006). Family support in the prisoner reentry process: Expect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3(1), 93-106.
-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2004). People of Faith Mentoring Children of Promise: A Model Partnership Based on Service and Community.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 Polkinghorne, D. E. (1994). Reaction to special section on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510-512.
- Roettger, M. E., & Swisher, R. R. (2009). Examining racial variations in the associations of father's history of incarceration with son's delinquency and arrest in contemporary US society. *National Center for Marriage Research Working Paper*, 09-01.

- Sampson, R. J. & Laub, J.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mons, T., & O'Neill, G. (2001). *Households and Families, 2000* (Vol. 3).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 Travis, J., & Waul, M. (2003). *Prisoners once removed: The impact of incarceration and reentry o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Urban Institute*.
- Visher, E. B., & Visher, J. S. (2013). *Therapy with stepfamilies*. *Routledge*.
- Wilson, H. (1987). Parental supervision re-examined.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7(3), 275-301.
- Wolff, N., & Draine, J. (2004). Dynamics of social capital of prisoners and community reentry: Ties that bind?. *Journal of Correctional Health Care*, 10(3), 457-490.
- Wright, J. P., Dietrich, K. N., Ris, M. D., Hornung, R. W., Wessel, S. D., Lanphear, B. P., ... & Rae, M. N. (2008). Association of prenatal and childhood blood lead concentrations with criminal arrests in early adulthood. *PLoS Medicine*, 5(5), e101.
- Zamble, E., & Quinsey, V. L. (1997). *The process of recidivis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 2016. 02. 19

1 차 심사일 : 2016. 02. 22

게재 확정일 : 2016. 11. 10

An Qualitative Study on Correctional institution Counselors' Perception of Ex-Offender's Experience regarding Reintegration into Family

Dong Hun Lee

Su Eun Kang

Seung Hee J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family reunion of the ex-offenders. To this end, Korea Rehabilitation Agency under Ministry of Justice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onducted intensive interviews with ex-offenders, their families and with 8 counselors who are in charge of ex-offenders and their families' residential,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support.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Consensus Qualitative Research(COR).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the counselors found out that most of ex-offenders had experienced unhappy childhood which was lack of healthy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Secondly, counselors noticed a common feature among the families of ex-offenders. The common feature was that they keep the fact that one of their parents was imprisoned to their children as a secret. Thirdly, through the data analysis, counselors could understand various factors that affect reunion of ex-offenders' families: the factors that helped successful reunion were ex-offenders' sense of responsibility, open and healthy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mutual understanding of being a good family member, whereas, irresponsible dependance to other family members, denier and avoidance from the family members against ex-offenders, and lost sense of being a family member were the factors that discouraged the reunion. It turned out that the kinds of crime that ex-offenders committed also affected family reunion. The processes of reunion were easier for those who served their time with fraud, embezzlement, whereas, it was much more challenging for those who served their time with rape, violence, or murder. Fourthly, counselors learned that "relaxation" is the key factor in the process of reunion of ex-offenders' families. They also emphasized that there should be thorough monitoring process before the intervention in the reunion process. This study contributes in terms of finding healthy ways of intervention with ex-offenders' families and developing programs that help ex-offenders to recover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y.

Key words : ex-offender, Experience regarding Reintegration into Family, Correctional institution Counselor, CQR